2020년 포천시 민주시민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과정

『BLACK MIRROR : 미디어, 거울 혹은 블랙홀』

수강기간	2020년 10월 8일~12월 10일(총10회) 매주 목요일 14:00~16:00	**수강인원**	30명 내외
강의목표	뇌를 마사지하고 몸을 지배하여 삶을 빨아들이는 블랙홀 같은 미디어, 우리를 돌아보는 거울로 활용하기	**강의장소**	비대면 온라인 교육
강좌명	『BLACK MIRROR : 미디어, 거울 혹은 블랙홀』	**강사**	주강사: 변중용(교육공동체 나다) 보조강사: 정열음(교육공동체 나다)
강좌소개	누군가와 사랑에 빠졌을 때 우리는 그 대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를 지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가장 무서운 전략은 그를 사랑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미디어는 자신을 사랑하게 만들기 위해 온갖 방법을 동원합니다. 사랑의 빠진 대중들은 미디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윽고 꺼진 미디어의 검은 창 안에 갇혀있는 자신들을 만나게 됩니다. 미디어는 우리를 비추는 거울이자 모든 것을 삼키는 블랙홀입니다. 그 블랙홀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꼭 껴안을 수 있는 품이 있다면 깍지 낄 수 있는 손가락만 있다면 미디어에 대한 사랑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차시	내용
1강(10/8) 미디어는 마사지다	학생, 엄마, 교사, 유재석, 류현진, 문재인.... 미디어는 신문, TV, 인터넷 같은 것들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모습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하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을 포함합니다. 당신은 어떤 미디어인가요? 혹 다른 사람들을 속이거나 다른 사람들을 상처 입히는 미디어는 아닌가요? 당신은 왜 그런 미디어가 되었을까요? 당신보다 힘이 센 어떤 다른 미디어가 당신이란 미디어를 그렇게 왜곡시켜 놓은 것은 아닐까요. “미디어 즉 폭력이 자신의 메시지를 가지고 스스로의 메신저가 된다. 이미지의 폭력은 바로 그 폭력을 매개체(미디어)로 해서 실재를 사라지게 만든다.” 당신은 어떤 미디어 혹은 어떤 폭력인가요?
2강(10/15) Ghost in the net : 미디어와 권력	잘 나가는 무당의 확신에 찬 목소리의 배후는 무엇일까요? 그 강렬한 목소리가 자신을 돌봐주는 귀신에 대한 믿음이라면 차라리 귀여울 수도 있겠지만 이름을 알려서 한 몫 잡아보겠다는 욕망이라면 더 무시무시하진 않을까요? 무당은 영어로 'medium'이라고 번역하고 'medium'은 'media'의 단수형입니다. 미디어의 배후에는 어떤 신이 버티고 있을까요?
3강(10/22) 미디어는 메시지다	흑백 사진으로 찍은 나와 칼라 사진으로 찍은 나는 왜 다른 분위기를 낼까요? 스틸 사진과 보정한 사진 중에 어떤 사진이 자신의 진짜 모습에 가까울까요? CCTV로 보이는 사람들의 모습과 뉴스카메라에 잡힌 사람들의 모습은 각각 어떤 느낌인가요? 어쩌면 미디어를 통해 전달되는 내용과는 상관없이 미디어 자체가 이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건 아닐까요? 마치 엄마가 하는 말은 어떤 말이든 다 잔소리로 들리는 것처럼 말이죠. 당신도 어쩌면 무언가를 표현하기 전부터 이미 하나의 메시지인 지도 모릅니다.
4강(10/29) 미디어는 모든 것을 삼킨다 : 미디어 비판	수많은 사람들이 미디어를 비판하지만 미디어에 대한 비판 역시 미디어를 통하지 않는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질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미디어는 그것이 자신의 덩치를 불리는 일이라면 자신에 대한 비판마저도 수용할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미디어는 두려워하지도 화내지도 않습니다. 당신의 무자비한 비판의 채찍에도 몸서리치며 즐거워하는, 미디어는 최강의 마조히스트입니다.

차시	내용
5강(11/5) 소녀상 아래서 브런치를 : SNS 시대의 미디어	얼굴책은 멈출 수 없는 성형이며 완성되지 않을 책입니다. 얼굴책은 보통의 책 같은 이야기의 흐름이나 인과관계가 쓸모없어진 책입니다. 그저 나열의 질서만 있을 뿐입니다. 소녀상 앞에서 집회를 하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모습 아래에 비싸고 예쁜 브런치 접시가 놓여있기도 하고, 아기의 귀여운 재롱 영상 위로 야동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온갖 정치적 선동과 문화적 도피가 섞여있는 그 책에 당신이 남기는 메시지는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6강(11/12) 거울 나라의 나르시스 : 미디어, 인간 신체의 확장	나르시스는 몰랐습니다. 모니터에 비친 모습이 확장된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그 모습에 중독되어 하릴없이 바라보면서도 그 모습이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숲속의 요정 에코는 나르시스의 탄식을 반복해서 울려댔지만 나르시스는 그것이 자기 목소리의 확장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렇게 나르시스는 감각이 마비된 채 죽어갔습니다. 이것은 옛날이야기가 아닙니다.
7강(11/19) 나는 소비한다 그러므로 존재한다 : 상업광고의 미학	시대는 언제나 인간에게 그 시대를 살아가기 적절한 껍데기를 제공합니다. 우리가 사는 시대가 바라는 우리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애국자? 효자? 이기주의자? 물론 이런 것들도 답이 될 수 있겠죠. 우리 시대를 설명하는데 가장 적절하면서도 강력한 틀은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자본주의, 특히 소비자본주의라고 표현할 수 있는 현재의 자본주의가 인간에게 덧씌우려는 가장 중요한 외피는 '소비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은 어떻게 소비자로 거듭(?) 날 수 있는 것일까요? 정부가 교육하냐구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누군가의 말처럼 그냥 그대로 두기만 해도 됩니다. 물건을 팔고 싶은 기업들이 인간들에게 주문을 외우는 일을 알아서 맡아주니까요.
8강(11/26) 피핑 톰은 반드시... : 미디어는 현실을 어떻게 재구성하는가?	알몸으로 영지를 돌던 영주 부인 고다이바를 훔쳐봤던 재단사 톰은 그만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를 기억한 사람들은 훔쳐보는 톰(peeping Tom)을 관음증의 다른 이름으로 불러댔습니다. 역사적 변태가 된 톰은 그러나, 그를 따르는 수많은 추종자들을 낳았습니다. 그들은 알까요? 피핑 톰은 반드시 눈이 먼다는 것을....
9강(12/3) 산타는 코카콜라를 마신다 : 미디어와 상징자본	여러분은 아마 아무도 산타 할아버지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굳이 유치원 주차장에서 수염을 떼어내고 담배를 피우는 빨간 옷의 아저씨를 목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산타가 없다는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이미 일곱 살들 사이에서는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그러나 정말 그것이 진실일까요? 현명한 어른들은 산타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산타를 믿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여전히 어린아이에 불과합니다.
10강(12/10) 뽀로로는 힘이 세다 : 캐릭터 이미지로 본 미디어의 힘	한국 사회의 모든 아가들은 뽀로로의 보살핌 속에 자랍니다. 울어도 뽀로로, 시끄러워도 뽀로로, 귀찮아도 뽀로로, TV뽀로로는 엄마보다 다정하고 아빠보다 친근합니다. 하지만 뽀로로는 엄마나 아빠, 그 어떤 어른들보다 강력한 존재입니다. 이것만 봐도 알 수 있죠. 뽀로로가 한 해 동안 벌어들이는 돈은 대부분의 아빠들이 평생 한 푼도 안 쓰고 벌어도 모을 수 없습니다. 뽀로로는 힘이 셉니다.